

제 55대 서울 총학생회 후보를 만나다

이지수 기자 ssu1404@khu.ac.kr
홍지민 기자 jimin4249@khu.ac.kr

“더 높은 경희를 향해” <경지> 총학생회(총학) 선거본부(선본)의 김석준(의학 2018) 정후보와 이리안(조리·서비스경영학 2020) 부후보, “함께 그리다, 우리의 경희” <스케치> 총학 선본의 이재백(관광학 2020) 정후보와 채희선(행정학 2020) 부후보를 만나 ‘제55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선거’에 출마한 이유와 핵심 공약을 들어봤다.

Q. 출마 계기는?

A. <경지> 정-성격상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다.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으며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공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학생 자치에서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총학을 만들고 싶었다.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 싶다는 포부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.

부-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고, 해결 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소통간담회에 참여했었는데 제기됐던 문제를 다 취합해보면 사실 결이 비슷하다. 이는 결국 해결 방안도 근본적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런데 나 혼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학교 차원에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총학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.

<스케치> 우리가 올해 둘 다 총학을 했다. 그 과정에서 총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고, 결국은 ‘학생들이 원하는 것’을 알고 그걸 실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 그런 예시들이 우리의 공약에 녹아 들어갔다. 사람들이 봤을 때 총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. 사실은 학생들과 같이 해나가야 한다. 그래서 우리는 ‘총학이 학생들과 함께 해나간다’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.

Q. 각 선본명의 의미는?

A. <경지> “더 높은 경희를 향해”라는 캐치프라이즈랑 똑같은 것 같다. “경희를 더 높은 경지에 올려놓고 싶다”는 의미이다.

<스케치> “함께 그리다, 우리의 경



좌측부터 ‘경지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석준(의학 2018), 부후보 이리안(조리·서비스경영학 2020) (사진1), 좌측부터 ‘스케치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이재백(관광학 2020), 채희선(행정학 2020) (사진2)
(사진1=‘경지’선거운동본부 제공, (사진2=‘스케치’선거운동본부 제공)

희”라는 모토를 가지고 ‘스케치’라고 짓게 되었다.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. 로고를 보면 k와 h만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다. 여기에서도 경희라는 뜻을 좀 더 내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리는 스케치에 학우분들이 함께 색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.

Q. 핵심 공약 한 가지가 있다면?

A. <경지>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공약은 ‘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강화’가 될 것 같다.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장학금 유형이랑 등록금 연계를 해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.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의견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결국 언제든지 갑자기 등록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.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말이 아니라, 등록금이 올라간다면 타당한 이유를 학생들한테 제시하고, 반드시 학생들의 권리를

확보하고자 한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.

<스케치> 핵심 공약이라고 하면 먼저 ‘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’이라고 할 수 있다. 사실 교양이라는 게 오로지 학습적 열의에 의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건데,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기기에 줄 세우기식 경쟁이 과열된 것 같다.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간의 코로나 생활로 절대평가를 경험해보면서 문제라고 느끼게 됐다.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만 하는 것을 타파해야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강의를 더 듣고 내적 동기를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으로 ‘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’을 핵심 공약으로 세우고 있다.

Q. 해당 선본을 유권자가 뽑아야만 하

는 이유와 선본만의 강점은?

A. <경지> 발전을 이루겠다고 출마 계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그 발전을 이루려면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로 총학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것 같다. 나와 부후보 모두 각 단과대학의 장을 1년 동안 맡으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다.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

<스케치> 첫 번째 키워드는 ‘준비와 경험’이다. 학우분들이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또 뭐가 개선돼야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.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개방형 휴먼부스, 대운동장의 평탄화, 경희톡 오류 해결 등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녹여냈는데 이런 공약들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

고 생각하고 있다.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요청해서 바꾼 경험도 많다. 학생증 디자인 리뉴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. 두 번째 키워드는 ‘고민과 공감’이다. 시설 측면에서 밤에 이동할 때 켜있던 계단의 빠그덕 소리, 어두운 환경 등의 문제들을 학우분들과 공감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.

Q. 선본이 꿈꾸는 우리학교의 모습은?

A. <경지> 풍부하고 위축되지 않는 학교를 원한다.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. 아마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도 모른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.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,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다.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 학생들이 절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

<스케치> (다른 학교를 두고) “재네 학교는 저런 것도 해준대”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. 우리학교도 그런 학교가 돼야 하고,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제 54대 총학생회에서 학생증 디자인을 변경한 것과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, 학생들이 “우리학교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”는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꿈꾸는 학교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.

Q.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?

A. <경지> 정-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내야 할 일을 당당히 해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총학으로서 경지가 자리매김하고 싶다. 또 이를 경지가 해낼 수 있다. 경지가 발전을 끌어낼 테니 경지를 믿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더해 더 높은 경희를 향한 동행에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.

부-이제는 더 높은, 더 나은, 더 발전된 경희를 향해서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. 경지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.

<스케치> 정-총학을 했던 경험이 비단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더욱더 높은 우리학교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.

부-우리가 새롭게 그려 나갈 ‘스케치’에 여러분의 다채로운 색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바란다.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총학,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총학이 되겠다.